

「科学의 날」小考

汎国民的 캠페인의 求心点돼야



洪 文 和
〈葉博·서울大教授〉

4월21일은 「科学의 날」이며 4월 한달은 「科学의 달」이라고 하여 나라 전체가 기념하기로 되어 있다.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거의 모든 部處가 각기 주관하는 행사를 지나고 있다.

「과학의 날」은 과학기술처가 주관 부처로 되어 있으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추진하는데 관련된 행사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우리는 「과학의 날」을 과학기술처만이 주관하는 科学·技術人的 기념일로서가 아니라 범 국민적이며 擧國的 캠페인의 求心点으로서의 意義와 意味를 찾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과학의 날」 制定의 源 緣부터 찾아보기로 한다.

1966년 5월19일, 「發明의 날」을 期하여 제 1회 全国科学技术者 大会가 열리고 그 대회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과학·기술인의 총 집결체인 「韓國科学技术團體總聯合會」를 설립할 것을 決議하였다.

이와같은 결의에 따라 그해 9월24일에 창립 총회를 열어 탄생된 것이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求心体형성의 시초라고 할 수 있겠다.

그 이듬해인 1967년 4월21일에 科学技術處

가 發足되므로써 科学·技術 行政의 主管체가 생겼고 이에 힘을 얻어 그해 5월19일에 열린 第2回 全国科学技术者 大会에서 「科学의 날」을 制定할 것을 建議하였다.

1968년 2월29일에 이와같은 建議를 實現시키기 위한 모임에서 과학기술처가 발족한 4월21일을 「科学의 날」로 하자는데 의견을 모아 드디어 그해 4월21일에 第1回 「科学의 날」 行 事를 發足시키기에 이르렀다. 第1回 「科学의 날」 紀念行 事 兼 第3回 全国科学技术者 大会의 趣旨文은 다음과 같다.

『現代는 한마디로 科学技術의 時代라 할 수 있습니다. 日進月步의 科学技術이 容赦없이 世界를 變革하는 世界史的 現代科学技術은 政治 經濟, 社会, 文化 諸領域에 있어서 支配的인 힘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現在와 將來의 人類 運命을 決定할 運命的인 힘이 되고 있습니다.

科学技術은 確實히 人類歷史에 있어서 르네상스나 宗教改革 나아가 佛蘭西革命 보다도 큰 歷史的, 社会的 影響을 미치고 있습니다. 科学技術의 浸透力은 如何한 民族이나 國家도 이에 抵抗할 수 없는 것이니 尙차 新生發展途上 國家로서 經濟自立과 祖国近代化 作業에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 科学技術의 重要性和 意義는 再論을 要치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서 科学과 技術이 있었고 近代化의 르네상스가 없었습니다. 다만 前近代의 인 矛盾속에서 “가난”과 “文盲”과 “疾病”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네 先祖들은 近代化의 出航을 念頭に 조차 두지 못했고, “해돋는 東쪽의 조용한 나라”의 自慰속에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랜 잠에서 깨어나 民族의 意慾을 近代化의 方向으로 集約하면서 經濟開發 國土開發, 科學技術開發이라는 巨大한 事業을 同時에 推進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歷史를 創造하여 記錄 하는 우람한 前進의 隊列에 모두 參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指向하는 經濟自立과 祖國近代化의 지름길은 科學과 技術을 開發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科學技術로서 資本의 貧困을 카버하고 産業技術開發로서 産業構造의 近代化와 製品의 國際競爭力을 強化하며 나아가 技術革新으로서 “豐饒하고 近代化된 社會”를 先導하기 爲하여는 最急先務가 科學技術의 振興이 아닐 수 없습니다.

科學技術은 「工業立國」「輸出立國」「近代化된 祖國」을 向한 戰略的 要點입니다. 이에 우리들 科學技術者들은 “科學하는 國民” “科學하는 生活”에 앞장을 서고 科學技術振興이 汎國民의 人 事業으로 推進되도록 그 素地와 氣風을 造成하는데 先導的 구실을 다할것을 決意한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1966年과 1967年의 2次에 結친 全國科學技術大會를 開催하여 이나라 科學技術人들은 矜持와 意慾을 더욱 드높이는 契機를 마련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制定實施되는 意義깊은 “科學의 날”을 期하여 第3次 全國科學技術者大會를 열고자 하는 것이오니 江湖諸賢의 絶對한 聲援과 協助가 있기를 衷心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금년이 第13回 「科學의 날」이니 어느덧 10餘年의 時間이 흘렀음에 놀라는 동시에 과연 「科學의 날」 發足時에 期約하였던 이와같은 드높은 氣概가 그대로 繼承發展되었는가를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行事を 위한 千篇一律의 人 行事나 有功者 표

창등의 오늘 하루에 행사로 그치는 일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 험한 日帝治下에서도 우리의 先輩들이 族的으로 科學의 大衆化 運動을 展開시켰던 역사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1934년 3월 8일, 칼스다윈의 忌日인 4월 19일을 「科學데이」로 정하고 「科學은 힘이다. 배우고 應用하자!」「科學의 荒無地 朝鮮을 開拓하자!」「科學의 勝利者는 모든것의 勝利者다」「한개의 試驗管은 全世界를 뒤집는다!」「科學의 基礎를 굳게 닦자!」등의 우렁찬 구호가 삼천리강산과 삼천만 동포의 가슴속에 메아리 쳤던 것을 想起할 필요가 있다.

금년은 우리가 대망하던 80년대의 첫 해이며 정치적, 경제적, 산업구조적으로 크게 발전을 이룩하느냐 또는 반대로 침체하느냐 하는 중대한 과도기에 처해있다. 이와같은 難局을 타개하는데 있어서 창발력과 합리성을 근본으로 삼는 과학적 사고방식이 國民전반에 보급됨과 아울러 技術혁신을 이룩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崇尚하는 風토가 마련되어야 하는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금년도 「과학의 날」 기념 행사중에 가장 時宜에 적합하다고 느낀것은 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가 主催하고 科學技術處가 後援하는 科學技術政策研究 세미나이다.

6個의 分科로 나누어서 ① 科學技術開發戰略 ② 80年代 科學水準의 向上 ③ 80年代 技術水準의 向上 ④ 80年代 企業主導의 技術革新方向 ⑤ 80年代 에너지 技術開發方向 ⑥ 科學技術에 對한 認識提高方向을 主題로 各 斯界 權威들의 托의를 거쳤으며 이 세미나에서 취합된 成果는 우리나라의 80年代 經濟社會的 進路와 科學技術開發의 戰略이 될 것으로 믿는다.

이와같이 「科學의 날」 행사가 概念的인 口號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位置定立과 앞으로 方向提示 및 效果의인 展開方案을 樹立하기 爲하여 衆智을 슴치는 行事로 成長되었으니 「科學의 날」도 이제는 成熟段階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되어 다같이 慶賀하여 마지 않는 바이다.